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난 28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문원영 전북도 투자유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엠에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전문기업 지엠에프

## 남원노암산업단지 150억원 투자

5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난 28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문원영 전북도 투자유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엠에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지엠에프는 2013년 남원노암산업단지 2지구에 남원공장 신축으로 인연을 맺은 후 이번엔 현 노암산업단지에 150여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약 50여명의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취업을 꿈꾸는 도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준다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엠에프는 '테이스트 더 내추어(Taste the Nature)'라는 모토로 정직, 정성, 성실함으로 자연을 담은 음식을 고객들에게 선사하고자 전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풀무원 등 국내 기업에 납품할 뿐만 아니라 및 자체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는 한편 향후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엠에프의 성장세는 기존 생산시설로는 밀려드는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추가 투자로 생산기반을 다지는 한편 향후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현지법인 등을 비롯해 해외지사화사업, 해외 전락거점 생산기지 건설, 국내의 차별화된 특화만두의 지속적 개발 등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 농공단지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지만 품질만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식품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원영 전북도 투자유치과장은 "(주)지엠에프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 한국의 식품과 문화를 세계인들과 공유하며, 한류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북도와 남원시도 투자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기자

## 여름방학 대학생 직무 인턴 수료식 개최

전북도는 여름방학(7월) 대학생 인턴십을 마무리하고 인턴들을 격려하기 위한 수료식을 지난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대학생 직무 인턴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전공분야의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업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한 대학생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마련한 2017년 신규 프로젝트로,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내 28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1:1 전담 멘토의 지도에 따라 인턴 전공과 관련된 업무와 현장실습을 직접 경험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인턴들의 실습 소감을 기관별 발표를 통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인턴십 수료증 전달 간부들의 격려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사전에 26개 공공기관 중 인턴 참여가 많은 기관(5개소)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턴의 근무상태와 실습 환경 및 부서별 업무교육 이행상태를 점검했으며, 인턴의 경험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기관별 멘토와 멘티간 취업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교류 및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료식 후에는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턴실습의 만족도와 개선점 등의 의견을 수렴·분석한 결과를 하반기 겨울방학(12월) 운영시 반영할 계획이다.

수료식에 참여한 인턴들은 "인턴십 기회를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공공기관의 경험을 살려 꼭 합격해 전공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으며, "보통 인턴이라면 이력서 한줄 추가하기 위한 스펙으로 여가는데 이번 인턴 프로그램에서는 업무능력은 물론 사회경험과 멘토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스스로의 취업능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짧지만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 전북도, 장사시설 수급계획 빅 데이터 활용

11월까지 분석 사업 진행

전북도가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편리성 선호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장례문화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손잡고 지난 2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도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 사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도 노인장애인복지과(과장 천선미)과 정보화총괄과(과장 김형우) 등 관련부서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신산철 이사, 원광대학교 정보전자상거래학부 이상원 교수, 서남권 추모공원 담당 공무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분석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주요내용은 먼저 도내 장사시설과 매장 및 화장정보, 출생지와 사망자 통계를 활용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어 도내 장사시설 이용현황과 추세를 분석해 수

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장사시설수급계획(2018년~2022년) 수립과 함께 장사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장사시설 정보 공유를 통해 도민 편의 증진과 장사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전북투어패스 1천만원 구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8일 1천만원 규모의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구매 전달식'을 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투어패스가 발매된 지 5개월이 넘는 초창기로 성공적인 조기집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판매가 중요하다"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연이

어 도내 기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구매에 동참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황의종 이사장은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19개 시·군·의 농어촌 버스업체들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해 버스업체 조합원과 각 16개 시도 조합 등에게 전북투어패스를 선물하여 외지인들이 전북을 찾아 오게 하여 전북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투어패스 구매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전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자발적인 전북투어패스 구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전달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북투어패스가 전북도에 사람이 찾아오고 돈이 되는 관광산업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 전주시 차 없는 거리행사장서 도로명주소 사용법 안내 홍보

전북도는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시군 도로명 서포터즈 30여명과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법을 알려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차 없는 거리 행사장'에서 지난 28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여 동안 집중 캠페인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무더위를 식히는 물놀이 이벤트를 주제로 물놀이 마당, 체력마당, 장터마당, 공연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주 송경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맞추어 실시했다.

올해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14년~) 4년차로 꾸준한 홍보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반면,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주소사용이 불편하다는 인식이 커 도로명주소 사용법 위주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차량이 통제된 도로구간을 현장체험 할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 시설물을 안내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는 내년 6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관 주도의 홍보에서 벗어나 직접 홍보활동을 실시 등 웹툰·말실물 시범물 신고,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홍보에 나서기 전에 서포터즈 간담회를 통해 도로명주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서포터즈 간담회도 가졌다.

/김진성기자

## 김일재 행정부지사, '순창군 구 국지도 49호선' 위험도로 현장행정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8일,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도로선형이 좋지 않아 주민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순창군 구 국지도 49호선 현장을 방문했다.

구 국지도 49호선은 내장산 국립공원과 강천산 국립공원 연결하는 도로로 도로 노선중 복층터널 상부마을을 지나는 구간에 급커브 구간이 있어 차량 통행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겨울철 상습결빙 구간으로서 교통 사고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그간 선형개선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선형개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 순창군 장명균 부군수, 지역주민들은 김일재 행

정부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였고, 주민 통행 편의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위험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도로 선형 개선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